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지명(地名)의 가치와 활용 방안

김순배 청주 흥덕고등학교 교사
Corresponding Author : gogeo@naver.com

국문초록

지명은 인간의 인식 작용이 환경과 만나는 지점 위에 존재하고 있으며, 많은 문화유산의 명칭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지명이거나 지명을 그 이름 속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명유산 속에는 인간 집단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그들이 만들어온 총체적 생활 양식, 나아가 소속감과 장소감에 이르는 모든 문화적 상징과 질서들이 내장되어 있으며, 인류 공동체가 소유한 문화와 자연을 외부에 지시하고 상징하고 통합하여 대표한다. 지명유산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가치를 정리하고 유형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지명 기능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첫째,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의미를 다룬 장에서는 먼저 문화와 문화 경관 개념에 담긴 중층성과 다양성, 그리고 경관현상학적 비재현성을 살펴본 후 지명 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제시하였다. 2003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과 연계하여 원주민과 소수민족 등이 소유한 '문화, 유산, 정체성으로서의 지명' 논의를 지명 연구 분야의 선행 연구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결의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명이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적 특성과 선정 기준을 문화성, 공간성, 역사성, 사회·경제성, 그리고 언어성으로 나누어 사례 지명과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유형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지명 실천이란 장에서는 먼저 지명의 지시 기능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식 문화재 명칭을 분석하여 명칭의 구성 및 관리에 있어 체계적이고 통일된 원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명 스케일과 다중-지명영역을 활용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시론적으로 논의하였다. 최근 유산 연구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간적 전환과 참여적 전환, 그리고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다중적 관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정 지명 스케일과 다중-지명영역의 선택을 통한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결정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지명, 문화유산, 지명유산, 지명의 지시 기능, 지명 스케일

투고일자 2021. 01. 23. ● 심사일자 2021. 04. 19. ● 게재확정일자 2021. 05. 03.





1. 서론

“땅은 사람을 얻어야 뛰어나게[勝] 되고, 사람은 땅을 얻어야 이름나게[名] 되니, 땅과 사람은 서로에게 부합[符]한다.”

충남 부여의 낙화암 위에 자리한 백화정(百花亭)의 편액에는 위와 같은 글귀가 있다. 공간과 장소는 인간과 관련되어야 뛰어난 승지(勝地)가 되고 인간은 공간과 장소를 점유해야 명성(名聲)을 얻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긴밀한 관계로 부합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인간은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공간을 얻어야 이름나게 된다는 이 같은 경험적 사유는 자연의 구체적 형상을 드러내는 이름 짓기(place naming)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이는 바로 언어적인 이름(name)이 있어야 모든 지리적·역사적 사실과 현상들에 가시적인 윤곽과 질서가 부여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땅 이름인 지명은 공간의 내외와 그 사이에 자리한 무수한 존재들에 형상과 윤곽을 새기며 그것을 다른 존재와 구별하고 스스로를 상징하며 외부에 대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명(地名, toponym, place name, geographical name)은 인간이 소유한 문화(文化, culture, Kultur)를 통해 자연 속의 지리적 실체들(geographical features)을 음성과 문자 언어로 표현한 고유한 이름으로, 행정 지명(서울특별시, 합천군, 규암면 등), 자연 지명(산, 하천, 자연습지 등), 해양 지명(해협, 만, 포, 해령 등), 그리

고 인공 지명(문화유산, 도로, 관광지 등)으로 분류된다.² 따라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 놓여 있는 견고한 관계와 이에 대한 정밀한 관계 분석은 두 존재가 만나는 지점으로서의 지명의 가치와 기능을 주목하게 한다. 자연 환경과 인간의 인식 작용을 이어주는 지명은 결국 문화적·공간적·언어적 요소라는 지명 구성의 세 요소로 표상되며 지시, 상징, 대표 통합이라는 세 기능으로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와 지명 연구(toponymy)를 포함하는 인문·사회과학의 연구 패러다임이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에서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으로, 다시 1990년대의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으로 변화해온 것을 감안할 때³ 이 세 가지의 연구 내용을 구성 요소로 삼는 지명학적 접근 방식이 문화유산 연구에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과정(process)과 실천(practice)으로서의 유산과 참여적 전환(participatory turn)에 주목하는 유산 연구(heritage studies)의 흐름과 함께,⁴ 경관에 대한 감흥(affect), 현존(presence), 체현(embodiment), 주거(dwelling), 움직임-속-지각(perception-in-motion) 등을 탐구하는 문화 경관(cultural landscape) 연구의 경관현상학(landscape phenomenology)적 접근과 비재현이론(non-presentation theory)을 고려하면 지명 경관(toponymic landscape)을 통한 수행(performance)과 실천을 강조하는 비판적 지명 연구(critical toponymy)의 관점이 문화유산 연구에 접목될 수 있다.⁵

1 부여문화원 편, 오세운 역, 2000, 『扶風詩社趣旨』, 『부여의 누정』, p.244; 김순배, 2012b, 『지명과 권력: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변천』, 경인문화사, p.353.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地得人而勝, 人得地而名, 地與人相符.” 『경국대전주해』(符信)에서 ‘符(부)’의 의미를 ‘뚫다[扶], 부합하다, 일치하다’라고 풀이한 것에 의거한다 면 마지막 문구를 “땅과 사람은 서로 돕고 부합하는 존재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2 국토지리정보원, 2018, 『지명 표준화 편람 (제3판)』, pp.11~15.

3 Baldwin, E., et al., 2004, *Cultural Studies*, New York: Prentice Hall, pp.43~52; 돈 미첼 지음, 류제현·진종현·정현주·김순배 역, 2011, 『문화정치 문화전쟁: 비판적 문화지리학』, 살림, pp.16~19.

4 Silverman, H., 2013, 'What's in a name? A Geography of Heritage revisited',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9(4), p.389; Lähdesmäki, T., et al., 2020, *Creating and Governing Cultural Heritage in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Heritage Label*, London: Routledge, p.4.

5 류제현, 2019, 「경관이론에 근거한 명승의 지각과 경험에 대한 연구방법론」, 『명승학의 연구방법론과 명승 연구의 실제』(2019년 사단법인 한국명승학회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pp.6~13; 김순배, 2012a, 「비판적·정치적 지명 연구의 형성과 전개: 1990년대 이후 영미권 인문지리학계를 중심으로」, 『지명학』 18, pp.30~32; Rose-Redwood, R. and Kim, S.-B., 2020, 'Street Naming and Power', in A. Kobayashi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2nd edition) vol.13, Amsterdam: Elsevier, pp.55~60.

디구나 선대로부터 계승되고 상속되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의 명칭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지명이거나 지명을 포함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⁶ 특히 지명 속에는 인간 집단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민속, 신앙, 종교, 관습과 제도 등과 같은 총체적 생활 양식,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과 소속 집단에 대한 장소감(sense of place), 장소혼(genius loci), 장소 정신(spirit of place), 소속감(belongingness) 등 모든 문화적 상징과 질서들이 그들의(음성과 문자) 언어로 내장되어 있다.⁷ 즉 유산의 일부이자 지명으로 구성된 지명유산(toponymic heritage)은 공동체가 소유한(문화·자연·복합) 유산을 지시하고 상징하고 통합하여 대표한다.

그러나 지명 연구의 관점에서 문화유산의 형식과 내용에 간직된 지명의 가치, 그리고 문화유산의 선정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명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가치를 정리하고 유형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지명 기능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⁸ 이때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의미를 분석하고 지명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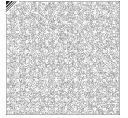
에 따라 문화유산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행위는 바로 문화유산을 경험하는 참여자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하는 관리자가 지명과 교감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명 실천(toponymic practices)을 말한다.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의미를 다룬 장에서는 지명 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의 논의를 제시하였다. 즉 문화 개념의 복합성과 다양성을 제시한 후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보호협약'과 연계하여 원주민과 소수민족 등이 소유한 '문화, 유산, 정체성'으로서의 지명' 논의를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결의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명이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적 특성과 선정 기준을 문화성, 공간성, 역사성, 사회·경제성, 그리고 언어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둘째, 유형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지명 실천이란 장에서는 지명의 세 가지 기능 중 지시 기능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한 후 지명 스케일과 다중-지명영역을 활용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문제를 시론적으로 분석하였다.

6 아프가니스탄의 세계유산인 'Minaret and Archaeological Remains of Jam'과 'Cultural Landscape and Archaeological Remains of the Bamiyan Valley'의 공식 명칭에는 각각 'Jam'(jam)과 'Bamiyan Valley'(바미안 계곡)이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인 '석굴암·불국사',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그리고 문화재인 '서울 송례문'(국보 제1호),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경주 포석정지'(사적 제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명승 제1호),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천연기념물 제1호)' 등의 공식 명칭들도 지명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세계유산현황, 지정문화재총괄표) <http://www.cha.go.kr> (접속일: 2020.12.16.); UNESCO 홈페이지(World Heritage List) <https://whc.unesco.org/en/list> (접속일: 2020.12.27.)]. 이때 문화유산의 명칭 속 지명들은 기본적으로 그 문화유산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를 지시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7 국토지리정보원, 2012,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언론자료(한국어판): UNGEGN Media Kit」, pp.3~4. 이 언론자료에서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은 지명이 가지는 문화유산적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리적 명칭(혹은 지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회·문화적 속성들을 형성한다. (...) 지명은 단순히 주소나 안내판을 위한 것이 아닌, 인간 삶의 윤택함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자 문화적 유산이다. 지명은 지역 정체성의 중요한 기반이자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기억과 문화적 공유 및 자신의 뿌리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데 기여한다. 지명은 인류 문화적 유산의 한 측면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수백 수천 년을 거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던 지명의 속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지명은 특정 언어가 사라진 경우에도 살아남은 채 세대를 이어갔다. (...) 지명은 각각의 과거로부터 기원한 살아 있는 역사로 인식되어야 한다. (...) 사회는 지명이 가진 유산을 고려해야 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 가운데에서 지명 자체의 기능성과 문화유산적 속성을 보존해야 한다. 오늘날의 경우 지역이 가진 고유한 이름들은 지역적·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업화 속에서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문화와 외래어로 인하여 위기를 맞고 있다."

8 지명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형(intangible)과 유형(tangible)이라는 문화유산의 분류 방식을 적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일상 생활에서의 구전(口傳)과 대화의 형식이라는 무형의 음성 언어와 추상적인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으로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한 후 시각적인 문자 언어와 가시적인 경관으로 인증(信衆)들에게 인식되고 경험되는 유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에 대한 관리 및 활용 차원으로 나누어 논지를 전개하였다.



II.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의미

1. 지명 문화유산의 국내외 논의

인간은 자신의 몸에 새긴 문신(文身)처럼 공간과 그들의 삶 위에 무수한 문화를 새기고 꾸미었다.⁹ 동방에서는 중국 문명이 소유한 화이관(華夷觀)의 이분법적 전통 속에서 이적(夷狄)을 중화(中華)의 '문(文)으로 교화(化)하려는' 기획을 통해 '발전되고 개화된' 중국 문명 중심으로 '오복(五服)'이라는 차등화된 영역을 구획하였다.¹⁰ 서방의 경우 문화지리학자, 문화인류학자, 그리고 문화 연구자들은 문화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한 개념임을 고백하였다. 일찍이 문화인류학에서는 약 174개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 개념을 제시하면서 문화를 '인간 집단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의 총집합체'라 정의하거나 '공연·전시·음악 등의 예술 활동이나 문학 활동' 등에 제한하여 사용하는 것, 혹은 문명(文明, civilization)의 동의어로서 '발전된 것이나 개화된 것'이라 범주화하기도 하였다.¹¹

영국의 문화 연구가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문화가 '경작과 돌봄(cultivation and tending)'의 의미를 지닌 라틴어 'cultura'에서 유래하여 15세기 초에는 '자연적 성장을 돌보는 행위'로 인식되었고, 이후 계급과 지위의 차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위계와 차별의 수단'이라는 의미가 담기게 되었고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문화를 '예술과 예술적

인 활동', '삶의 방식으로 학습된 상징적인 특징들', 그리고 '하나의 발전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¹²

문화지리학의 경우 문화를 '총체적 생활 양식'이자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 그리고 '감정의 구조를 조형하는 생산물의 집합'으로 바라보면서 문화가 가진 상징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삶의 영역들이 상호 작용을 통해 문화를 생산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문화라는 용어가 가진 광의성과 의미의 복잡성으로 인해 문화라는 용어 대신 문화가 전개되는 '권력 관계, 사회적 상호 작용, 영역, 수준, 매개 등'으로 표현하자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경관형태학(Morphology of Landscape)의 관점에서 문화와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문화는 하나의 '동인(factor)'이고 자연 지역 혹은 자연 경관은 '매개체(medium)'이며 문화 경관은 그 '결과(result)'이다"라고 언급하였다.¹³

한편 18세기 이래로 문화와 문화경관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독일 철학자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 1744~1803)에 의해 제시되어 이후 문화복수주의(cultural pluralism), 문화특수주의(cultural particularism), 그리고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거쳐 1990년대 이후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추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었다.¹⁴ 최근에는 코로나 19라는 전염병과 같은 공간 및 사회를 구성하는 비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요소가 주목되면서 지금까지의 '인

9 네이버 한자사전 홈페이지 (디지털 한자사전 e-한자, 상형문자 文) <https://hanja.dict.naver.com>, (접속일: 2020.12.18.).

10 김순배, 2019, 「기전(畿甸) 지명(地名攷)」, 『기전문화연구』 40(1), pp.4~5. 중국은 고대로부터 왕이나 군주가 거처하는 경기(京畿)나 왕기(王畿)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500리(약 200km) 단위로 5개의 구역을 나누어 오복(五服), 즉 전복(甸服)·후복(侯服)·수복(綏服)·요복(要服)·황복(荒服)의 5등급으로 세계를 분류하여 차등화하였다. 이때 '황복(荒服)'이란 영역은 중국 문명의 교화가 미치지 않는 '거칠고 미개한' 구역을 의미한다; 김현주, 2015, 「계몽기 문화 개념의 운동성과 사회 이론」, 『개념과 소통』 15, pp.5~45. '文化'는 중국 진한(秦漢)시대 저서인 유향(劉向)의 『설원(說苑)』에 처음 용례가 보인다. "凡武之興, 爲不服也, 文化不改, 然後加誅." 본래 '文化'는 '예악(禮樂)으로 이적을 교화한다'라는 뜻이었으며 이로부터 '문덕(文德)으로 백성들을 교화한다'는 고전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11 Kroeber, A.L. and Kluckhohn, C., 1952,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 New York: Vintage Books; 이진, 2021,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문화(文化)' 개념에 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 33(1), pp.43~44.

12 Baldwin, E., et al., 2004, *ibid*, pp.4~7; 돈 미첼 지음, 류제현·진종현·정현주·김순배 역, 2011, 앞의 책, p.13.

13 돈 미첼 지음, 류제현·진종현·정현주·김순배 역, 2011, 앞의 책, pp.9~25.

14 돈 미첼 지음, 류제현·진종현·정현주·김순배 역, 2011, 앞의 책, pp.13~14.

간/비인간, '가시적(유형)/비가시적(무형)', '사회(문화)/자연', '고급/저급 문화', 그리고 '중심/주변' 등과 같은 이분법적 존재론과 인식론을 반성하면서 '인간 너머(more-than-human)'의 존재들과 인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탈(脫)인문적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¹⁵

1990년대 이후에는 국제 사회에서 문화 의미에 내포된 중층성과 다양성, 이들 사이의 경합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서구 유럽 및 미국, 중앙권력 중심의 제국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단일적 문화 개념을 극복하려는 포스트 계열(postism)의 사상들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포스트 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식민주의(post-colonialism) 등의 확산으로 지금까지 문화의 정의와 문화유산의 선정 및 표준화 과정에서 타자와 소수자로 배제(exclusion)되어왔던 비가시적인 원주민과 소수민족의 문화들, 저급하고 주변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작고 힘없는' 문화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¹⁶ 나아가 문화유산의 해석에 있어서도 과거 거대 담론을 통해 패권국이나 집권층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근대적 유산 해석을 부정하고 기억유산, 화해, 인권 개념을 강조하는 포용적 유산 해석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¹⁷

최근 진행되고 있는 문화 연구와 유산 연구의 변화는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으로서의 지명 논의를 확장시켜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유

네스코(UNESCO)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과 연계하여 원주민과 소수민족 등이 소유한 '문화, 유산, 정체성으로서의 지명' 논의를 지명 연구 분야의 선행 연구들과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결의안(Resolutions)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전통문화인 동시에 살아 있는 문화로서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 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른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되어왔다. 특히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2003) 채택 이후 정체성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유산 지점(heritage sites)이 동시에 무형유산이 수행되는 장소임을 인식하면서 유형·무형문화유산 사이의 결합성(linkages)이 주목되어왔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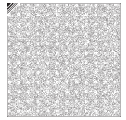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20세기 후반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8년 제155차 집행위원회에서는 산업화와 세계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제도를 채택했다. 이후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3년 유

15 김병연·조철기, 2020, 「사회·자연 이분법을 넘어서는 도시 이해를 위한 '인간너머'의 지리교육 가능성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4), pp.436~448; 황진태, 2018, 「편집의 글: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탐색과 전망」, 『공간과 사회』 28(1), pp.5~15; Braun, B., 2005, 'Environmental issues: Writing a more-than-human urban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5), pp.635~650.

16 Light, D. and Dumbraveanu-Andone, D., 1997, 'Heritage and national identity: Exploring the relationship in Romania',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3(1), p.28; Graham, B., 1996, 'The contested interpretation of heritage landscapes in norther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1-2), p.10; Silverman, H., 2013, *ibid*, p.390. 루마니아에서는 국가(민족) 유산을 통한 국가(민족) 정체성의 구축 과정에서 국가 내 소수민족(헝가리계)의 문화 정체성과 경합하고 갈등하는 양상이 발생하였으며, 북아일랜드에서는 과거의 유적이 현재의 정치적·문화적 요구들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되면서 유산 경관(heritage landscape)이 다양한 사회집단들에 의해 다르게 해석되는 경합적 해석과 유산의 충돌(dissonance of heritage)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하나의 단일한 것으로 여겨졌던 '과거를 복수화(Pluralising Pasts)'하는 과정에서 장소의 재현(representation)과 창조에 미치는 유산의 역할이 주목되기도 하였다.

17 이나연, 2020, 「문화유산 해석 연구의 통시적 발전과 유산 해석(interpretation)의 개념」, 『문화재』 53(3), pp.42~61.

1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esco.or.kr/heritage/ich/index.asp> (접속일: 2020.10.07.); Silverman, H., 2013, *ibid*, p.390.



네스코 총회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하였다. <표 1>은 무형문화유산의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 특징 등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정리한 것이다.¹⁹

표 1 무형문화유산(ICH)의 정의와 특징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협약 제2조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 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 문화 공간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협약 제2조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공연 예술(전통음악, 무용 및 연극 등) -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 전통 기술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협약 제2조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 - 인간과 주변 환경,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 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 -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 부여 -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증진 - 공동체 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

이 협약은 국제 사회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건축물 위주의 유형문화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있는 유산(living heritage), 즉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 인식과 확대된 문화유산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지만 아직도 문화산업의 맥도날디제이션(McDonaldization) 등과 같은 세계화와 급속한 도시화, 문화 통합 정책과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무형문화유산이 사라져가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 논의는 냉전 체제 붕괴 이후 증가하고 있는 지역 분쟁, 지명의 의미(meaning)와 의미 생산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 전쟁(culture wars)과 맞물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조항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위, 특징 면에서 지명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보존을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는 항목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의’ 조항에서 제시된 ‘공동체 및 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표현들’과 ‘문화 공간’, ‘범위’ 항목에서 제시된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그리고 ‘특징’ 조항에서 언급된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됨’, ‘인간과 자연 환경의 교류 및 역사 변천 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됨’,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을 부여함’,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을 증진함’ 등의 항목들을 통해 지명의 생성(명명), 변천(개명), 소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들의 다양한 명명 방식과 지명 인식의 다양한 문화성과 공간성, 역사성, 언어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명학계에서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가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연구들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지명이 갖는 문화유산적 측면과 경관 및 장소 정체성 구성의 수단으로서의 지명 등이 연구되어왔다.²⁰ 그 중 Watt(2009)는 문화유산이란 조상으로부터 개인 또는 사회에 전해 내려오는 언어, 습성, 신념, 관습 등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명에 담긴 문화유산적 요소들을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²¹

19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홈페이지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ttps://ich.unesco.org/en>, (접속일: 2020.10.19.).

20 Caiazzo, L. and Nick, I.M. (eds.), 2020, *Shifting Toponymies: (Re)Naming Places, (Re)shaping Identities*,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지명(의 명명과 개명)은 우리의 환경과 정체성을 (재)형성시키는 데 활용되는 역동적 도구이자 시공간을 가로질러 세계의 비전과 정체성, 그리고 가치를 실어나르는 긴요한 매개체이기도 하다.

21 Watt, B., 2009, ‘Cultural aspects of place names with special regard to names in indigenous, minority and regional languages’, in Jordan, P., et al. (eds.), *Geographical Names as a Part of Cultural Heritage*, Wien: Institute für Geographie und Regionalforschung der Universität Wien, Kartographie und Geoinformation, pp.21~23.

표 2 지명의 문화유산적 요소

고향 의식 (sense of home)	- 어떤 장소에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 공동체와 경관 사이에 창조되는 공간적 관계의 형성
기억과 기념 (remembrance and memorial)	- 각 지명이 보유하고 있는 이야기, 이미지, 기억, 기념의 대상 등
이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습 (picture of movement and social interaction)	- 지명을 통한 사람과 문화의 이동 경로, 그리고 상호 작용의 방향과 정도의 추적
사회적 태도에 대한 창 (window into social attitude)	- 특정 시점에서 어떤 사회가 지닌 사회적 태도의 반영

주: Watt(2009)가 제시한 지명의 문화유산적 측면을 도표로 정리한 것임.

Watt(2009)가 네 가지로 정리한 지명의 문화유산적 요소와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가치는 앞서 제시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조항들과 많은 부분이 합치된다. 즉 지명유산을 통해 공동체와 자연 환경 사이에 창조되는 공간적 관계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고 지명이 보유한 다양한 이야기, 이미지, 기억, 기념 등에서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화 집단의 이동 경로와 상호 작용의 정도를 지명의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적할 수 있으며, 지명 표기의 언어적 특수성을 통해 특정 사회 집단이 당대의 세계를 바라보던 가치관과 태도 등을 읽어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려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가치와 지명 문화유산의 선정을 통한 보호의 노력으로 확산되어왔다. 최근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와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에서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가치를 논의하고 지명이 지닌 문화유산적 특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는 지명이 역사, 민속, 전통문화, 사상 등의 측면에서 갖는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한 사회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지명을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지명이 갖는 문화유산적 요소와 이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 방법 등을 논의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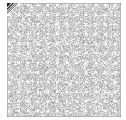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유네스코의 영향을 받아 1992년에 개최된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총회에서 시작되었다. 이 회의에서 핀란드는 문화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국내 지명들을 보고하였고, 뉴질랜드는 마오리 원주민의 지명을 보존하는 정책을 소개하여 토착 지명(endonym, indigenous toponym)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² 1997년 제7차 총회에서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보호하는 맥락에서 지명의 중요성을 논의하였으며, 2002년 제8차 총회는 1998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의 영향을 받아 지명의 문화유산적 측면을 소수민족 지명의 발굴과 개발, 원주민 지명의 기록과 명기의 문제, 그리고 사회·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각 지역 및 국가의 유산과 정체성과 관련된 지명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라는 결의안(VIII/9)을 채택하였다.²³

2007년 제9차 총회에서는 유네스코의 권고안과 무형문화유산의 일부인 지명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명을 확인, 지정, 신청하며 지명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IX/4)을 채택하였다.²⁴ 이후 2012년 제10차 총회에서는 원주민, 소수민족, 현지어

22 주성재, 2010, 「무형문화유산(ICH)으로서 지명: 유엔지명회의에서의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pp.177~179; 주성재, 2011, 「유엔의 지명 논의와 지리학적 지명 연구에의 시사점」, 『대한지리학회지』 46(4), p.453.

23 주성재, 2011, 앞의 논문, p.453.

24 주성재, 2011, 앞의 논문, p.454; 주성재, 2019, 「다차원적 비관지명학 연구를 위한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54(4), p.457; 국토지리정보원, 2018, 앞의 책, pp.19, 31, 35.



지명을 중심으로 ‘문화, 유산, 정체성으로서의 지명’을 중요 의제로 설정하여 문화 정체성의 관점에서 정신적 기록으로서의 지명의 가치를 확인하고 유네스코가 강조한 다양성 증진에 있어 언어의 중요성, 그리고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의 보호를 지명의 관점에서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지명의 역량에 호소하면서 사용의 지속성, 희귀성, 그리고 특정 정체성을 체현하고 있는 지명의 문화유산적 특성을 위해 지명이 보호되어야 함을 권고하는 결의안(X/3)을 채택하였다. 특히 2012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27차 세션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하여 유엔지명전문가그룹 내에 ‘원주민과 소수민족 지명의 진흥(the Promotion of Indigenous and Minority Group Place Names)’ 워킹그룹의 명칭을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Geographical Names as Cultural Heritage)’으로 변경하였다.²⁵

또한 이 회의에서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과 관련된 각국의 학술적 연구 내용과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의 결과들이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국가 지명 기구에 영향을 미치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지명의 문화적 측면 조사(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영국, 캐나다),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분석(French-speaking Division), 지명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표준과 관련된 고지명(ancient names)의 보호 문제(China Division), 소수민족 지명의 역할과 처리 문제(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독일, 네덜란드 등), 카린시아(Carinthia) 지방에서의

공식 이중언어 지명(official bilingual names)의 증가 현상 보고(오스트리아), 문화적·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지명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원리와 규정 마련(라트비아) 등이다.

특히 이 회의에서 핀란드는 ‘지명법(Act on Place Names)’을 통해 사회 활동에서 차지하는 지명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공식 언어로 보완된 지명 목록 발간 사업, 그리고 지방 행정구역의 통합 시 합병된 행정 지명에 옛 지명을 사용하여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자국의 「역사환경법(Historic Environment Act)」에 포함된 ‘좋은 지명 실천(Good place-name practice)’ 항목을 소개하였다.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랜 기간 사용해온 지명을 함부로 변경하지 말 것, ② 오랜 기간 사용되어온 철자 형태가 아니라면 지명은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③ 오랜 기간 사용된 지명은 새로운 지명을 명명할 때 고려해야 함, ④ 스웨덴어, 사미어(Sami), 핀란드어, 그리고 미엔키엘어(Meänkieli, 스웨덴 북부 지방) 지명들은 그것이 분포하는 다언어 지역(multilingual areas)에서 가능한 한 병기하여 사용해야 함. 이를 통해 문화유산 일부로서의 지명의 가치와 인식을 증대시키고 지명의 언어적 형태와 철자에 관한 논의를 강조하였다.²⁶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고문헌에 남아 있는 소수민족 지명의 사례로서 「龍飛御天歌(용비어천가)」(1445)의 지명 주석이 주목된다. 이 지명 주석은 한국 지명사에서 최초의 한글 표기 지명으로 평가되는 약 126개의 지명들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豆湍투·먼江(두만강),

25 Choo, S. (ed.), 2015, *Geographical Names as Cultural Heritag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oponymy Seoul, 7-9 November 2014*, Seoul: Kyung Hee University Press, pp.25-39; UNGEGN 홈페이지 https://unstats.un.org/unsd/ungegn/working_groups/wg9.cshhtml (접속일: 2020.10.08.)

26 Choo, S. (ed.), 2015, *ibid.*, pp.66-72. 2019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와 통합·개편되어 새롭게 출범한 신(新)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은 ‘2021-2029 전략 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토착민족의 지명에 대한 회원국들의 접근 방식 공유, 문화 정체성·언어에 대하여 지명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증거 제공, 기념 명명 및 상업적 명명 같은 문화 지향적 결의와 관련한 실천 프로그램 공유, 도시 지명 및 도로명 제정의 과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관련성에 관한 크라우드소싱 도입의 경험과 조언 공유, 문자로 표기되지 않는 지명을 기록하고 작성하는 접근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그리고 유네스코가 무형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지명을 인정하도록 검토함. 한편 국제지리연합(IGU)에서는 2021년 5월에 이탈리아 레체(Lecce)에서 ‘문화유산 일부로서의 지명(Place names as a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이란 지명 세션을 포함하는 유산 지리 관련 학술회의(IGU Conference on Heritage Geographies: Politics, Uses and Governance of the Past)를 개최했다.

‘回叱家 횃가, 暖禿古魯 년·투구·루’ 등과 같은 15세기 당시의 여진어(女眞語) 지명이 다수 기록되어 있고 일부는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과 여진족의 관계와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거나 고대 지명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희귀한 지명 자료들이다. 한편 우리나라 지명은 귀중한 민족 문화유산이자 국어 문화유산임을 강조하고, 고어(古語)나 사어(死語)가 화석처럼 잔재해 있는 지명들, 그리고 지역 문화를 반영하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명들이 체계적으로 수집, 발굴, 정리, 보존, 활용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다.²⁷

이와 관련하여 동해안 어촌 마을인 경북 영덕군의 노물(영덕읍 노물리)과 뱃불(축산면 경정리)에는 사라진 전통 어업문화를 간직한 바다 위의 다양한 어장 이름들, 즉 ‘마산내기’, ‘사봉내기’, ‘거랑짜리’, ‘버들짬’, ‘큰말내기’, ‘돛시내기’, ‘거랑짜리’, ‘짬말기’, ‘마쫂불’ 등의 작은 지명이자 생계 지명들이 고령의 노인들에 의해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

화, 그리고 지명의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우리말의 고유 지명과 작은 지명들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²⁸

2. 지명 문화유산의 선정 기준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가치를 확인한 후에는 그 가치에 부합하는 지명을 선정하는 작업과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있는 지명 선정과 관련하여 일찍이 주성재(2011)는 역사성, 지역 주민과 밀착된 유래, 지역 정체성과의 연관, 지역 주민의 선호, 결속력 집결에의 역할, 그리고 체계적인 기록의 여부 등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자연·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의미와 가치에 초점을 둔 다섯 가지 선정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3): ① 지명의 문화성(cultural trait of toponym), ② 역사성(historical trait), ③ 공간성(spatial trait), ④ 사회·경제성(socio-economic trait), ⑤ 언어성(linguistic trait)이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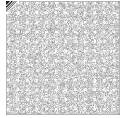
표 3 지명 문화유산의 선정 기준과 사례

기준	지명	위치	명명 유연성 (命名有緣性)
문화성	東海	한반도 동쪽의 일본열도로 둘러싸인 바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바다 이름(『三國史記』 고구려본기 권12 동명왕조 등)
	白頭山	북한 양강도~중국 길림성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산 지명
	미륵당이, 미력당이 (彌力堂里, 美堂)	충남 연기군 전동면 미곡리	불교 미륵 신앙, 彌力堂里 > 美堂
	孝家里(孝浦, 孝溪)	충남 공주시 신기동	유교 지명, 통일신라 경덕왕 14년(755)에 효자 向德의 효성을 기록한 孝子向德碑가 있음
공간성	명당골(明堂洞)	충남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풍수 지명, 臥牛形, 長蛇逐蛙形, 蠶頭形, 金烏啄屍形의 여러 明堂이 있음
	무도리, 무드리 (水回洞, 水回里)	충남 공주시 의당면 용암리	하천 곡류 지형 반영
	음지편(陰地里)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산지 및 구릉 북사면에 위치하여 일조량이 적은 곳
	미추홀(彌鄒忽)	인천광역시	고구려 지명
역사성	소부리(所夫里)	충남 부여군 부여읍	백제 지명
	달구벌(達句伐)	대구광역시	신라 지명
	朝鮮, 古朝鮮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부근 북한 평양시 부근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국가 이름(『三國遺事』, 『帝王韻紀』)
	고마나루, 熊津 (固麻, 久麻那利)	충남 공주시 (명승 제21호)	웅진백제(475~538)의 수도(『三國史記』 백제본기 권28 의자왕; 『梁書』 諸夷傳 백제 조; 『日本書紀』 권27 天智紀 2년 8월조 등)였던 공주의 옛 지명. 일본 문헌에는 구마나리(久麻那利)로 나타남

27 도수희, 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pp.96~118; 김정태, 2014,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에 대한 국어 정책적 접근」, 『지명학』 20, pp.39~65.

28 김순배, 2013a, 「동해 지명의 의미'들과 영역'들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25(3), p.124; 김순배, 2013b, 「한국 지명의 표준화 역사와 경향」, 『지명학』 19, pp.5~70.

29 주성재, 2011, 앞의 논문, pp.458~459; 김순배, 2012b, 앞의 책, pp.373~617.



기준	지명	위치	명명 유연성 (命名有緣性)
역사성	泗沘, 所夫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백제 시대(538~660)의 수도(『三國史記』백제본기 권28 의자왕; 『梁書』諸夷傳 백제조; 『日本書紀』권27 天智紀 2년 8월조 등)
	慶州 月城	경북 경주시 인왕동 387-1 (사적 제16호)	신라 궁궐이 있었던 도성. 성의 모양이 반달처럼 생겼다 하여 반월성·신월성, 왕이 계신 성이라 하여 재성(在城)이라고도 함. 『삼국사기』에 의하면 파사왕 22년(101)에 성을 쌓고 금성에서 이곳으로 도성을 옮겼다고 전함
	대궐터, 신도안 (大闕坪, 新都內, 新內洞)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조선 초기 계룡산으로의 천도 논의
사회·경제성	上所田, 下所田	대전시 동구 상소동, 하소동	사회적 권력 관계에 의한 지명 개명
	큰(大)~, 작은(小)~	전국 분포	지배적 사회 집단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촌락 형성의 선후 등을 판단할 수 있음
	白丁村	세종시 연동면(옛 연기군 동면, 동일면)	하층의 특수 신분인 백정이 거주하던 곳
	질을(陶谷)	충남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질그릇점이 있던 곳
	앞술막(앞酒幕)	충남 논산시 노성면(읍내면) 교촌리	三南大路(濟州路·海南路) 상의 酒幕里
	새장터(新場里), 가루전골(粉塵里), 대전골(竹塵里), 환전터(換垆里)	충남 논산시 강경읍(은진현 김포면) 흥교리, 중앙리, 남교리 일대	『여지도서』, 『호구총수』 기록에는 은진현 김포면에 一里, 二里, 三리의 숫자 지명만이 등재되다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동명칭일람』 기록에서부터 많은 상업 지명과 구체적인 촌락명이 등재되기 시작함
언어성	모산(茅山)	충북 제천시 모산동 안모산, 바깥모산 충북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의림지 (명승 제20호)	못안 > 모산. 의림지의 안쪽(상류)과 바깥쪽(하류)에 위치함
	지리산(智異山)	전남 구례군-전북 남원시-경남 산청군	완만한 편마암 산지의 특성을 표현하는 '두루산'이 '두리 > 드리 > 디리 > 지리'의 구개음화 과정을 거쳐 형성됨
	미리미(龍村)	대전시 서구 용촌동	미리~미르: 용(龍)을 지칭하는 순수한 우리말의 옛 어휘가 잔존하고 있음
	버드내 (柳等川, 柳川)	대전시 중구 유천동	柳等: '벌들~버들'의 반처적기법 표기

주1: '명명 유연성'이란 해당 지명이 지칭되거나 통용되는 범위, 즉 지명 영역 내의 자연적이고 인문적인 속성을 뜻함.

주2: '명명 유연성'항목의 'a > b'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지명 표기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첫째, 지명 문화유산을 선정할 때는 '문화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족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 혹은 문화 집단이 특정 시대에 그들의 독특한 생활 양식과 가치관, 이념 등을 반영하여 명명한 지명들에는 일정한 문화 정체성(cultural identity)이 담겨 있다. 특정 시대와 공간의 문화 정체성을 담고 있는 지명들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담지한 채 생성되고 변천되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대별로 우세하게 명명되어 당대 지명 언중들의 정체성과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불교 지명, 유교 지명, 풍수 지명, 민속 지명 등이 있다.

둘째, 지명 문화유산의 '공간성'이다. 지리적 요소로서의 지명은 반드시 일정한 공간적 지칭 범위, 즉 지명 영역(toponymic territory)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지명은 지명이 위치한 곳의 자연 및 생태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지명이 자리한 곳의 지형과 기후를 반영하는 지명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지명의 공간성은

과거 특정한 공동체 및 집단의 이동 경로와 분포 범위 등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지명 형태소로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후부 지명소로서의 '~홀(忽)', '~부리(夫里)', '~벌(火, 伐)' 등은 각각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에 기반하여 명명된 지명 형태소로서 이를 통해 삼국의 영역 범위와 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셋째, 지명 문화유산의 '역사성'이다. 지명의 생성 과정에는 일정한 역사적 사실과 사건, 지명 전설, 전설 지명 등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적 혹은 지역적 스케일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곳의 지명은 언중들의 지명 인식(기억, 이미지, 기념, 정체성, 상징)에 하나의 고정된 통로로 작용하여 일상 생활에서의 역사 의식과 국가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지명 문화유산의 '사회·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명은 특정한 시대의 사회 집단들 내부에 얽혀 있는 사회적 관계와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지명이 지닌

사회성을 통해 특정 정치 공동체와 집단들의 사회적 신분 관계와 권력 관계, 지명 형성의 순서 등을 밝혀낼 수 있다. 또한 경제 활동과 관련된 지명은 전산업 시대에 특정한 하층민들이 거주하던 각종 생산과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및 상업 활동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다섯째, 지명 문화유산을 선정할 때는 ‘언어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명은 기본적으로 지리적·문화적 성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음성과 문자 언어 형태로 표현되고 전달되는 언어성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지명 형태소나 표기를 통해 한국어의 고어를 재구성하고 음운 변화의 특성과 전통적 차자 표기의 역사를 고찰할 수 있는 언어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모산’이란 지명 중 일부는 지명의 통용 과정에서 ‘못안(池內)’이 자음접변 되면서 발생한 음가를 반영하여 표기된 것이다. 한편 ‘지리산(智異山)’이란 이름은 원래 완만한 편마암 산지의 특성을 표현하는 ‘두루산’이 전라도 방언의 음운 현상을 반영한 결과 ‘두리 > 드리 > 디리 > 지리’의 구개음화를 거쳐 형성된 지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른 어휘와 달리 지명이 지닌 보수성 내지는 존속성으로 인해 특정 어휘의 고어를 간직하고 있는 지명 사례들이 있다. 일례로 ‘미리미(龍村, 용촌)’의 경우 한자 ‘용(龍)’의 순수한 우리말은 ‘미르’인데, 현재는 사라진 옛 어휘인 ‘미르’가 순수한 우리말 형태로 촌락 단위의 지명에 간직되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한편 18세기 후반의 기록(『여지도서』, 『호구총수』 등)에까지 등재되던 전통적 차자 표기 방식인 이두식 받쳐적기법(訓主音從法)을 확인할 수 있는 지명들이 있다.³⁰ 예를 들어 ‘버드내’를 받쳐적기법으로 차자 표기한 ‘柳等川(유등천)’의 경우 ‘柳等~’은 ‘별들~버들’을 받쳐적기한 것으로 ‘유등’으로 읽지 말고 ‘별들~버들’로 읽으라는 차자표기법이다. 이후 받쳐적기법이 소멸되면서 현재는 표기 한자음대로 ‘유등천’이라 부른다.

Ⅲ. 유형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지명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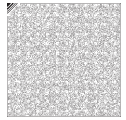
1. 지명의 지시 기능을 활용한 문화유산 관리

지명의 기능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의 명칭을 체계적으로 명명하고 목록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명은 인간의 일상 생활에서 하나의 기호(sign)처럼 작용하면서 크게 세 가지 기능, 즉 지시, 상징, 대표 통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명은 겉으로 ‘지시되는(denoted)’ 1차적인 실용적 기능(utilitarian functions)과 ‘암시되는(connoted)’ 2차적인 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s)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일상 생활과 행정 및 관리 영역 등에서 다양하고 수많은 장소, 지역, 공간 정보를 외부에 대표하는 제1의 대표자(representative)이자 공간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인식, 통합, 관리해주는 통합자(integr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실용적 기능이란 공간적 방향 설정과 관련된 어 공간 정보들 사이의 서로 다른 ‘위치’와 ‘영역’을 가리키고 구별하는 지명의 지시 기능을 의미한다. 둘째, 상징적 기능은 기호의 상징적 메시지와 관련되는 문화적 가치, 사회적 규범, 그리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정체성을 구성하며, 사회 및 문화 집단들은 자신들이 후원하고 지지하는 상징 지명(symbolic toponym)을 만들어 개인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나아가 소속감과 장소감 및 장소성(placeness)을 재현하여 표상한다. 마지막으로 지명이 가진 대표 통합 기능은 인간의 일상 생활에서 지식 및 정보 축적과 분류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활용되며, 특정 공간에 분포하거나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리적·역사적 사실들과 현상들을 해당 지명으로 대표하여 분류하고 통합하여 관리한다.³¹ 지명이 가지는 이 세 가지 기능 중 지시 기능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함리적이

30 김순배, 2004, 「지명 변천의 지역적 요인: 16세기 이후 대전 지방의 한자 지명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6(3), pp.79-80; 김순배, 2012b, 앞의 책, pp.124-131.

31 김순배, 2012a, 「비판적·정치적 지명 연구의 형성과 전개: 1990년대 이후 영미권 인문지리학계를 중심으로」, 『지명학』 18, p.41; 김순배, 2012b, 앞의 책, pp.57-96; 김순배, 2020a, 「동해, 이름의 정치학과 지리적 상상」, 『문화역사지리』 32(3), p.52; 김순배, 2020b, 「호서 지명고(湖西地名攷): 상징 지명의 의미와 영역 정체성」, 『문화역사지리』 32(1), pp.100-125.



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명이 인간의 일상 생활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기능은 바로 지시 기능이다. 다른 곳과 이곳을 구별하고 위치와 영역 찾기에 활용되는 지명의 지시 기능은 문화유산의 명칭과 명칭 관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 명칭은 일정한 체계와 통일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명의 지시 기능을 활용하여 문화유산 명칭과 그 목록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7409호, 시행 2021.6.10.)에는 '제40조(신고사항)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와 같이 문화재(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지명, 특히 행정구역 명칭인 '행정 지명'(시·도 명칭, 소재지, 지역의 위치 등)과 도로명(주소 등) 등을 활용하고 있다.³² 한편 지명의 지시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에는 지명을 포함하는 표장(標章)으로 지명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그리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존재한다.³³

현재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각종 문화재의 명칭을 분석하면 지명의 지시 기능이 대표 통합 기능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⁴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과 지정문화재(시·도 지정문화재 제외)의 명칭 속에는 지명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인공 지명의 경우 지명 자체가 문화유산의 명칭(불국

사, '창덕궁' 등)인 경우도 많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 '서울 재동 백송' 등과 같이 (행정) 지명을 문화유산 명칭 앞에 부기하여 문화재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를 지시하고 있다.

특히 세계유산과 명승의 경우 지명이 100% 포함되어 있으며, 사적의 경우도 99.6%가 명칭 속에 지명이 병기되어 있다. 특히 명승, 사적,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등에 지명 사용 비율이 높은 이유는 동산 문화재들과는 달리 해당 문화재들이 일정한 지리적 위치와 영역을 점유하고 있거나 민속문화재처럼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문화유산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지점이자 이 둘의 관계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지명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인류무형유산(23.8%)과 국가무형문화재(41.6%)의 경우 지명 사용의 비중이 낮다. 그 이유는 '판소리', '강강술래', 그리고 '온돌문화', '인삼 재배와 약용 문화' 등과 같이 무형문화유산이 가지는 무형의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강조하여 명칭 속에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은 필연적으로 특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생성되어 수행되기 때문에 '진도 강강술래'처럼 우세하게 분포하는 곳의 지명을 병기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공간적 위치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접근성과 포괄적인 문화재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명이 모든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명승의 경우 지명 영역의 지리적 스케일에 따라 명칭 표기의 통일성이 요구된다. 명승(名勝)은 그것을 구성하는 경관적 요소에

32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문화재보호법) <https://www.law.go.kr> (접속일: 2020.12.17.). 「문화재보호법」에 포함된 '지명' 관련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55조(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사항)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⑤ ...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 1 ... 소재지, 2 ... 지역의 위치"; "제38조(국가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3 ...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제51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1. 가 ...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3. 다 ...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6.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 또는 등록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등.

33 이규호, 2016, 『지명표장(지명표장) 보호법제: 지리적 표시 포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pp.3~21. 특히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보성 녹차', '진도 홍주', 유럽연합(EU)의 '보르도', '교낙', '스카치위스키' 등과 같이 출처 표시(indication of source)와 원산지 명칭(appellation of origin)의 양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동시에 원산지에 의존하는 제품의 품질 또는 특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표지를 말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 연계성이 강한 전통 지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상표법의 관리 차원에서 지명의 지시 기능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34 문화재청 홈페이지 (세계유산현황, 지정문화재총괄표) <http://www.cha.go.kr>, (접속일: 2020.12.16.).

표 4 한국 문화유산 명칭 속 지명 사용 비율

문화유산 종류	지명 사용 수량 (a/b)	지명 사용 비율 (%)	문화유산 종류	지명 사용 수량 (a/b)	지명 사용 비율 (%)
세계유산	14개/14개	100	사적	517/519	99.6
세계유산 잠정목록	11/13	84.6	명승	115/115	100
인류무형 유산	5/21	23.8	천연기념물	401/462	86.8
세계기록 유산	6/16	37.5	국가무형 문화재	62/149	41.6
국보	183/347	52.7	국가민속 문화재	230/302	76.2
보물	1,277/2,210	57.8	국가등록 문화재	686/896	76.6

주1: '지명 사용 수량'의 'a/b'는 국내 해당 문화유산의 총수(b개)에서 명칭 안에 지명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수량(a개)을 뜻함.

주2: '지명 사용 비율(%)' 항목의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주3: 문화재청 홈페이지 (세계유산현황, 지정문화재총괄표) <http://www.cha.go.kr> (접속일: 2020.12.16.)에서 제공받은 엑셀 자료(2019년 12월 31일 기준)를 기초로 작성함.

따라 산악 경관, 계곡·폭포 경관, 하천 경관, 호소 경관, 도서 경관, 해안 경관, 수계 경관, 고원·평원 경관, 암벽 경관, 식생 경관, 온천·냉광천지 경관 등으로 분류된다.³⁵ 명승의 명칭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행정 지명 + 지명 + 경관요소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지명'에 사용된 지명들은 광역 자치단체의 명칭들 중 충남, 전북, 강원, 경북 등과 같은 '도(道)'를 제외한 특별시·광역시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며(부산 오륙도, '서울 성북동 별서'), 나머지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 즉 시(市)와 군(郡)의 전부 지명소가 사용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죽령 옛길'이나 '광한루원' 등과 같이 행정 지명이 누락된 채 자연 지명이나 인공 지명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으며, '삼각산', '속리산 법주사 일원' 등과 같이 '행정 지명'이 생략된 채 자연 지명과 인공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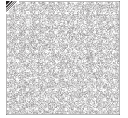
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있다. 혹은 '진안 마이산', '봉화 청량산' 등과 같이 '행정 지명'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명승 명칭의 구성에 있어서도 일정한 체계성이나 통일성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명승 제1호인 '명주 청학동 소금강'(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1970년 11월 23일 지정)의 경우처럼 행정 지명이 변경되었는데도(명주군 ⇒ 강릉시, 1995년) 과거의 행정 지명이 그대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 소멸된 행정 지명인 '명주'가 그대로 사용되면서 지명이 가지고 있는 지시 기능이 훼손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문화재 위치 파악과 이해에도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명칭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여 통일된 형식으로 개명하는 것이 지명의 지시 기능을 극대화하고 일반 국민과 관광객의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행정 지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화유산의 성격과 지리적 규모, 그리고 지명 영역의 스케일에 따라 '대 행정 지명 + 소 행정 지명 + 지명(+경관요소 명칭)'의 형식으로 명칭 구성을 체계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명의 지시 기능과 관련된 문화유산 명칭의 관리에 있어 관심이 필요한 분야가 로마자 표기(romanization) 문제이다. 특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여행자와 관광객의 정확하고 빠른 길 찾기와 원활한 지명 소통을 위해 문화유산의 로마자 표기 문제는 또 하나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마카오(Macau)의 원천 언어인 중국어, 포르투갈어, 영어 등을 한국어로 변환하면서 발생하는 관광객의 길 찾기 어려움을 연구한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 변환, 특히 관광 장소의 지명 변환(place name conversion)의 정확성은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다.³⁶

35 문화재청 홈페이지 (천연기념물·명승) <http://www.heritage.go.kr>, (접속일: 2020.12.16.).

36 Choi, S.-h. and Wong, C.U.I., 2018, 'Toponymy, place name conversion and wayfinding: South Korean independent tourists in Macau',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25, pp.13-22;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2019, 『지리명의 로마자 표기 국제 표준화의 문제와 해결방안 발표 자료집』(과실연 제133차 오픈 포럼), pp.28-40.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 표기 방식은 전사법(transcription)과 전자법(transliteration)이 있다. 2000년에 고시된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원음과의 유사성, 음성 전달 및 발음(소리)을 중시하는 전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어로의 환원성, 문자 전달 및 글자(철자)를 중시하는 전자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2. 지명 스케일과 다중-지명영역을 활용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모든 지명은 배타적으로 통용되는 공간적 범위, 즉 지명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리적 스케일(geographical scale)에 따라 대지명, 중지명, 소지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³⁷ 지명 영역은 대체로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자연 환경을 경험하고 인식하면서 명명되기 때문에 일정한 지형과 유역 분수계를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재내(瓦川)', 그리고 '한계리'라는 지명 영역은 바로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및 활동 반경이 반영되어 결정된 1일 생활권이자 생활 지형 단위이다. 기초 생활권으로서의 지명 영역은 일상 생활의 반복 속에서 자연 환경과 문화유산을 경험하고 감각하는 지리적 인식 단위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정) 지명들이 지명 영역과 지리적 스케일에 따라 '지구-아시아-대한민국-강원도-인제군-북면-한계리-재내'로 표현되는 모습은 마치 인형 속에 작은 인형이 있고 그 안에 또 다시 유사한 모양의 더 작은 인형이 포개져 있는 러시아 인형('Russian doll'-type scalar order)을 닮아 있다. 예를 들어 북서서-남동동 방향의 한계천 유역에 자리 잡은 '한계리(寒溪里)'라는 하나의 지명 경관은 그 안과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유사한 언어 형태와 의미를 가진 (작은) 관련 지명들, 즉 '재내', '설악산(雪岳山)', '대청봉(大靑峰)', '금산(金山)', '안산', '가리봉', '쇠리', '쇠밭골', '늪재', '갈직촌', '한계천', '한계산', '한계산성', '한계령', '한계사지', '대승령', '대승폭포', '소승폭포', '옥녀탕', '장수대', '차양곡', '오색이령', '소동라령(바드락재, 所等羅嶺, 所東羅嶺, 所冬羅嶺)' 등과 지리적·언어적·

문화적·역사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연쇄되어 있고, 이러한 다양한 스케일을 가진 지명 경관요소들의 조화 속에 '한계리'라는 더 큰 하나의 전체가 구성되어 존재하고 있다.³⁸

그래서 '재내'에 살고 있는 나는 동시에 '재내'를 포함하고 있는 '한계리'와 '북면'에 살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인제군', '강원도', '대한민국', '아시아', '지구'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재내'에 사는 동안 나는 매일매일 관련 지명을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느끼면서 '재내'라는 지명에 담겨진 장소감과 장소(영역) 정체성, 그리고 동시에 지명에 스며 있는 다중의 시간적 층위 속으로 흡수된다. 또한 동시에 '한계리'와 '북면'의 공간성과 시간성을, 또한 '인제군', '강원도', '대한민국'의 공간성과 시간성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지각하게 된다.

모든 문화유산의 위치와 관리 범위 또한 기초 생활권이자 지리적 인식 단위로서의 지명 영역과 지명 영역의 스케일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있으며, 스케일 연쇄(scale linkage)를 통해 문화유산과 역사문화환경의 위치와 공간적 범위는 다양하게 규정되고 감상될 수 있다. 하나의 공간에 다양한 의미와 기억, 감정이 누적되어 서로 다른 장소감과 시간감(sense of time)이 중첩되어 있을 때³⁹ 우리는 이 공간을 다양한 목소리와 의미(multivocality)를 가진 다중-공간(poly-space)이라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지명으로 표현하면 다중-지명영역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계리'라는 큰 지명 안에 작은 지명들이 조화롭게 연계되어 있고 작은 지명 안에 또 다시 유사한 지명이 포개져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지명과 그 지명 안에 포함된 문화유산과 역사문화환경을 지

37 김순배, 2010, 「지명의 스케일 정치: 지명 영역의 스케일 상승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2(2), pp.15-37.

38 김순배, 2014, 「설악산권 자연 지명의 의미와 지명 영역의 변화: '설악'과 '한계'를 중심으로」, 『지명학』 21, pp.37-78; 지현영, 2001, 『한국 지명의 제문제』, 경인문화사. 소리와 뜻, 그리고 표기가 유사한 지명들이 서로 인접하여 분포하는 현상을 지현영(2001)은 '지명의 화동성(和同性)'이라 칭하였다. 화동성의 과정 속에 형성된 관련 지명들은 더 큰 지리적 스케일과 지명 영역을 가지는 하나의 지명 경관을 구성해간다.

39 류제현, 2016,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사환경의 관계」, 『문화재』 49(3), pp.217-218. 여기에서 류제현(2016)은 한국의 역사문화환경과 유사한 개념인 영국의 역사환경(historic environment)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역사환경이 장소감으로 불리는 지방의 고유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통해 로컬(local) 스케일에 거주하는 지방 주민들에게 사회·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통하여 관광이나 기업을 위한 투자에 매력적인 장소를 조성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전체론적인 통합적 관점을 통해 역사문화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명 스케일과 다중-지명영역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지명 스케일과 다중-지명영역에 관한 인식을 ‘인제 한계 산성’(사적 제553호), ‘설악산 대승폭포’(명승 제97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등과 같은 유산 지점(heritage site)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입하면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스케일의 다중적 관점과 감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⁴⁰

최근 유산 연구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간적 전환과 참여적 전환을 고려하고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다중적 관점과 공감각적 지각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시각적 경관 보호에 집중되어 있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반성하고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특별보호지구 및 고도 보존육성지구 등과 같은 공간적 범위 설정 시에 지명 스케일과 다중-지명영역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⁴¹ 그 가능성은 지명을 활용하여 문화유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명칭을 명명할 때 지명 안에 담긴 기초 생활권과 지리적 인식 단위, 그리고 지명 영역의 스케일과 다중-지명영역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비롯될 수 있다.

요컨대 ‘문화재 반경 500m’식의 획일적 구획이 아니라 문화유산에 대한 공감과 감정이입, 경험과 체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정 지명 스케일과 다중-지명영역을 선택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결

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²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역사 기념물과 주변의 보호·관리 제도는 1906년 이래로 도시 및 지역 계획과의 호환성을 높이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오면서 적절한 지명 영역 스케일을 선정해 보존지역(자연지구, 보호반경, 보존지구, 보호지대, 유산중점지역, 문화유산지구 등)의 공간적 범위를 명명 및 선택해왔다.⁴³

IV. 결론

지명은 인간 집단이 자연·인문 환경을 인식한 최종의 결과물로서, 인간의 인식 작용이 환경과 만나는 지점 위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문화유산의 명칭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지명이거나 지명을 그 이름 속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명과 문화유산 속에는 인간 집단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그들이 만들어 온 총체적 생활 양식, 나아가 소속감과 장소감에 이르는 모든 문화적 상징과 질서들이 내장되어 있다. 그 결과 지명 유산은 공동체가 소유한 문화와 자연을 외부에 지시하고 상징하고 통합하여 대표한다.

그러나 유산 연구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지명과 문화유산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포착하지 못하였고 지명 연구의 관점에서 문화유산의 형식과 내용에 간직된 지명의 가

40 Silverman, H., 2013, *ibid.*, pp.389~390; Lähdesmäki, T., *et al.*, 2020, *ibid.*, p.89; 정해준, 2019,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명승의 체계적 관리방안」, 『명승학의 연구방법론과 명승 연구의 실제』(2019년 사단법인 한국명승학회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p.12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의미한다.

4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 (접속일: 2020.12.17.). “제13조(보호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②.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42 김원룡, 1965, 「올바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창간호, pp.29~33. 일찍이 김원룡(1965)은 당시의 문화재 보존사업이 순전히 보전(保全)을 위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며, 문화재가 우리의 생활과 격리되어 높은 담 안에 쌓여 있는 죽은 물건이 아니라 문화재의 진실한 뜻과 가치를 우리의 실생활과 연결시켜 교육적·경제적으로 ‘실감(實感)되고’ ‘체험(體驗)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43 이수진·류제현, 2019, 「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관리제도의 진화: 1913~2016」, 『문화재』 52(3), pp.94~111. 이와 함께 신준·류제현(2017)에서 이론적으로 분석된 바와 같이 명승을 포함하는 경관유산에 내재된 인문적(심미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해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관을 조망하고 감각 및 체현할 수 있는 경관 포인트와 탐방 루트를 선정 및 명명하는 과정에서 대지명과 그 안의 다양한 소지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명 스케일과 다중-지명영역 개념을 적용한 문화유산 활용 방안은 앞으로 심층적인 후속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치, 그리고 문화유산의 선정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명의 기능 측면을 간과해왔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가치를 정리하고 유형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지명 기능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의미를 분석하고 지명의 기능에 따라 문화유산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행위는 바로 유산 연구의 공간적 전환과 참여적 전환의 흐름을 반영하여 문화유산을 경험하고 체현하는 참여자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하는 관리자가 지명과 교감하여 수행하는 일종의 지명 실천이기도 하다.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의미를 다룬 장에서는 먼저 문화와 문화경관 개념에 담긴 중층성과 다양성, 그리고 경관현상학적 비재현성을 살펴본 후 지명 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제시하였다. 2003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과 연계하여 원주민과 소수민족 등이 소유한 '문화, 유산, 정체성'으로서의 지명' 논의를 지명 연구 분야의 선행 연구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결의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지명이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적 요소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조항들과 많은 부분이 합치된다. 지명을 통해 공동체와 자연 환경 사이에 창조되는 공간적 관계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고 지명이 보유한 다양한 이야기, 이미지, 기억, 기념 등에서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화 집단의 이동 경로와 상호 작용의 정도를 지명의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적할 수 있으며, 지명 표기의 언어적 특수성을 통해 특정 사회 집단이 당대의 세계를 바라보던 가치관과 태도 등을 읽어낼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지명이 지니고 있는 자연·문화유산적 특성과 선정 기준을 문화성, 공간성, 역사성, 사회·경제성, 그리고 언어성으로 나누어 사례 지명과 함께 제시하였다. ① 민족 공동체나 문화 집단이 특정 시대에 그들의

독특한 생활 양식과 가치관, 이념 등을 반영하여 명명한 지명들에는 일정한 문화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다(문화성). ② 지리적 요소로서의 지명은 반드시 일정한 공간적 지칭 범위, 즉 지명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지명은 지명이 위치한 곳의 자연 및 생태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공간성). ③ 지명의 생성 과정에는 일정한 역사적 사실과 사건, 지명 전설, 전설 지명 등이 반영되어 있다(역사성). ④ 지명은 특정한 시대의 사회 집단들 내부에 얽혀 있는 사회적 관계와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정 사회 계층이 거주하면서 각종 생산과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및 상업 활동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사회·경제성). ⑤ 지명은 기본적으로 지리적·문화적 성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음성과 문자 언어 형태로 표현되고 전달되는 언어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지명 형태소나 표기를 통해 한국어의 고어를 재구성하고 음운 변화의 특성과 전통적 차자 표기의 역사를 고찰할 수 있는 언어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언어성).

둘째, 유형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지명 실천이란 장에서는 먼저 지명의 세 가지 기능, 즉 지시, 상징, 대표 통합 기능 중 지시 기능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공식 문화재 명칭을 분석하여 명칭의 구성 및 관리에 있어 통일된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현행 행정 지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화유산의 성격과 지리적 규모, 그리고 지명 영역의 스케일에 따라 '대 행정 지명 + 소 행정 지명 + 지명(+경관요소 명칭)'의 형식으로 명칭 구성을 체계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지명 스케일과 다중-지명영역을 활용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시론적으로 논의하였다. 최근 유산 연구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간적 전환과 참여적 전환을 고려하고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다중적 관점과 공감각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후 문화유산에 대한 공감과 감정이입, 경험과 체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명 생활권과 지리적 인식 단위를 참고하고, 이에 알맞은 특정 지명 스케일과 다중-지명영역을 선택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나아가 경관 포인트와 탐방 루트가 결정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가치가 참여자와 관리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지명의 기능과 스케일, 그리고 다중-지명영역에 간직된 다양한 장소감과 시간감이 이들에게 체현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의 명칭과 범위 선정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이 고안되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지명 실천들은 바로 유산 연구의 공간적 전환과 참여적 전환을 '몸(body)'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공감하는 수행들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토지리정보원, 2012,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언론자료(한국어판): UNGEGN Media Kit」, 수원: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지리정보원, 2018, 『지명 표준화 편람(제3판)』, 수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김병연·조철기, 2020, 「사회-자연 이분법을 넘어선 도시 이해를 위한 ‘인간-너머의’ 지리교육 가능성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4), pp.436~448.
- 김순배, 2004, 「지명 변천의 지역적 요인: 16세기 이후 대전 지방의 한자 지명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6(3), pp.65~85.
- 김순배, 2010, 「지명의 스케일 정치: 지명 영역의 스케일 상승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2(2), pp.15~37.
- 김순배, 2012a, 「비판적·정치적 지명 연구의 형성과 전개: 1990년대 이후 영미권 인문지리학계를 중심으로」, 『지명학』, 18, pp.27~73.
- 김순배, 2012b, 『지명과 권력: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변천』, 서울: 경인문화사.
- 김순배, 2013a, 「동해 지명의 의미‘들’과 영역‘들’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25(3), pp.99~131.
- 김순배, 2013b, 「한국 지명의 표준화 역사와 경향」, 『지명학』 19, pp.5~70.
- 김순배, 2014, 「설악산권 자연 지명의 의미와 지명 영역의 변화: ‘설악’과 ‘한계’를 중심으로」, 『지명학』 21, pp.37~78.
- 김순배, 2019, 「기전(畿甸) 지명고(地名攷)」, 『기전문화연구』 40(1), pp.1~23.
- 김순배, 2020a, 「동해, 이름의 정치학과 지리적 상상」, 『문화역사지리』 32(3), pp.51~69.
- 김순배, 2020b, 「호서 지명고(湖西 地名攷): 상징 지명의 의미와 영역 정체성」, 『문화역사지리』 32(1), pp.100~125.
- 김원룡, 1965, 「올바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창간호, pp.29~33.
- 김정태, 2014,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에 대한 국어 정책적 접근」, 『지명학』 20, pp.39~65.
- 김현주, 2015, 「계몽기 문화 개념의 운동성과 사회이론」, 『개념과 소통』 15, pp.5~45.
- 도수희, 2003, 『한국의 지명』, 서울: 아카넷.
- 돈 미첼 지음, 류제현·진중헌·정현주·김순배 역, 2011, 『문화정치 문화전쟁: 비판적 문화지리학』, 파주: 살림(Mitchell, D., 2000,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 류제현, 2016,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사환경의 관계」, 『문화재』 49(3), pp.210~223.
- 류제현, 2019, 「경관이론에 근거한 명승의 지각과 경험에 대한 연구방법론」, 『명승학의 연구방법론과 명승 연구의 실제』(2019년 사단법인 한국명승학회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pp.1~20.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2019, 「지리명의 로마자 표기 국제 표준화의 문제와 해결방안 발표 자료집」(과실연 제133차 오픈 포럼), pp.28~40.
- 부여문화원 편, 오세운 역, 2000, 『부여의 누정』, 부여: 부여문화원.
- 신준·류제현, 2017, 「전통 명승에 부여된 인문적 가치의 내용과 실제 사례」, 『문화역사지리』 29(1), pp.77~92.
- 이규호, 2016, 『지명표장(지명표장) 보호법제: 지리적 표시 포함』, 서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이나연, 2020, 「문화유산 해석 연구의 통시적 발전과 유산 해석(interpretation)의 개념」, 『문화재』 53(3), pp.42~61.
- 이수진·류제현, 2019, 「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관리제도의 진화: 1913~2016」, 『문화재』 52(3), pp.94~111.
- 이진, 2021,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文化’ 개념에 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 33(1), pp.1~17.
- 정해준, 2019,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명승의 체계적 관리방안: 영국 역사환경 보전을 위한 ‘주변환경(setting)’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명승학의 연구방법론과 명승 연구의 실제』(2019년 사단법인 한국명승학회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pp.124~149.

참고문헌

- 주성재, 2010, 「무형문화유산(ICH)으로서 지명: 유엔지명회의에서의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pp.176~182.
- 주성재, 2011, 「유엔의 지명 논의와 지리학적 지명 연구에의 시사점」, 『대한지리학회지』 46(4), pp.442~464.
- 주성재, 2019, 「다차원적 비판지명학 연구를 위한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54(4), pp.449~470.
- 지현영, 2001, 『한국 지명의 제문제』, 서울: 경인문화사.
- 황진태, 2018, 「편집의 글: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탐색과 전망」, 『공간과 사회』 28(1), pp.5~15.

- Baldwin, E., et al., 2004, *Cultural Studies*, New York: Prentice Hall.
- Braun, B., 2005, ‘Environmental issues: Writing a more-than-human urban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5), pp.635~650.
- Caiazzo, L. and Nick, I.M. (eds.), 2020, *Shifting Toponymies: (Re)naming Places, (Re)shaping Identities*,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Choi, S.-h. and Wong, C.U.I., 2018, ‘Toponymy, place name conversion and wayfinding: South Korean independent tourists in Macau’,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25, pp.13~22.
- Choo, S. (ed.), 2015, *Geographical Names as Cultural Heritag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oponymy Seoul, 7-9 November 2014*, Seoul: Kyung Hee University Press.
- Graham, B., 1996, ‘The contested interpretation of heritage landscapes in norther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1-2), pp.10~22.
- Kroeber, A.L. and Kluckhohn, C., 1952,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 New York: Vintage Books.
- Lähdesmäki, T., Čeginskas, V. L. A., Kaasik-Krogerus, S., Mäkinen, K., and Turunen, J., 2020, *Creating and Governing Cultural Heritage in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Heritage Label (Critical Heritages of Europe)*, London: Routledge.
- Light, D. and Dumbraveanu-Andone, D., 1997, ‘Heritage and national identity: Exploring the relationship in Romania’,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3(1), pp.28~43.
- Rose-Redwood, R. and Kim, S.-B., 2020, ‘Street Naming and Power’, in A. Kobayashi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2nd edition) vol.13, Amsterdam: Elsevier, pp.55~60.
- Silverman, H., 2013, ‘What’s in a name? A Geography of Heritage revisited’,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9(4), pp.388~394.
- Watt, B., 2009, ‘Cultural aspects of place names with special regard to names in indigenous, minority and regional languages’, in Jordan, P., Bergmann, H., Cheetham, C. and Hausner, I., (eds.), *Geographical Names as a Part of Cultural Heritage*, Wien: Institute für Geographie und Regionalforschung der Universität Wien, Kartographie und Geoinformation.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문화재보호법) <https://www.law.go.kr>, (접속일: 2020.12.17.).
- 네이버 한자사전 홈페이지 (디지털 한자사전 e-한자) <https://hanja.dict.naver.com>, (접속일: 2020.12.18.).
-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정책 Q&A, 세계유산현황, 지정문화재총괄표) <http://www.cha.go.kr>, (접속일: 2020.12.16.).



참고문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esco.or.kr/heritage/ich/index.asp>, (접속일: 2020.10.07.).
-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홈페이지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ttps://ich.unesco.org/en>, (접속일: 2020.10.19.).
- UNESCO 홈페이지 (World Heritage List) <https://whc.unesco.org/en/list>, (접속일: 2020.12.27.).
- UNGEGN 홈페이지 (Working Groups, Resolutions) <https://unstats.un.org/unsd/ungegn>, (접속일: 2020.10.08.).

Toponymic Practices for Creating and Governing of Cultural Heritage

KIM Sunbae Teacher, Cheongju Heungdeok High School

Corresponding Author : gogeo@naver.com

Abstract

Toponyms are located not only in the site between human cognition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but also in the name of cultural heritage. Accordingly, certain identities and ideologies for which human groups and community have sought, their holistic way of life, and all cultural symbols and cosmos, such as sense of place and genius loci, are included in their toponymic heritage. Denoting, symbolizing, integrating and representing the culture and nature belong to the human community. Based on these perceptions of the toponymic heritage, the aims of this article are to examine the values of a toponym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and to suggest the application methods using the toponymic functions for governing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article discusses the multivocality, diversity, and non-representational theory of landscape phenomenology intrinsic to the terms of culture and cultural landscape and the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on the toponymic heritage in the first chapter on the values of toponym as a part of the ICH.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preceding research in the field of toponymy, as well as the Resolutions of UNCSGN and UNGEGN on “Geographical names as culture, heritage and identity” including indigenous, minority and regional language names since 1992, which is related to the UNESCO’s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3. Based on this, I suggest that the traits of toponymic cultural heritage and its five standards of selection, i.e., cultural traits of toponyms, historical traits, spatial traits, socio-economic traits and linguistic traits with some examples.

In the second chapter discussing on the methods using the toponymic denoting functions for creating and governing of the 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underlined to maintain the systematic and unified principle regarding the ways of naming in the official cultural heritage and its governing. Lastly, I introduce the possible ways of establishing a conservative area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while using the toponymic scale and multi-toponymic territory. Considering both the spatial and participatory turns in the field of heritage studies in addition to the multiple viewpoints and sense of cultural heritage, I suggest that the conservative area for the cultural heritage and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should be set up through choosing the certain toponymic scale and multi-toponymic territory.

Keywords toponym, cultural heritage, toponymic heritage, denoting functions of toponym, toponymic scale

Received 2021. 01. 23. ● Revised 2021. 04. 19. ● Accepted 2021. 05. 03.



